

# 앵커 김남주 vs 변호사 고현정

〈JTBC 금토드라마 '미스티'〉

〈SBS 수목드라마 '리턴'〉

1971년생·미인대회 출신·세련미 닮아  
고현정 '미스티'서 데뷔 첫 변호사 역  
'리턴' 김남주 살인용의자 앵커로 변신

1971년생 동갑내기 배우 김남주와 고현정의 자존심을 건 연기대결이 펼쳐진다. 두 사람은 각각 1992년, 1989년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세련되고 도회적 이미지를 지닌 공통점이 있어 오랜만에 복귀하는 신작에서 선보일 연기 변신에 시청자의 시선이 모아진다.

김남주의 연기 활동은 무려 6년만이다. 2012년 KBS 2TV 주말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 이후 휴식을 취했던 그는 2월2일 첫 방송하는 JTBC 금토드라마 '미스티'로 돌아온다. 극중 김남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앵커로서 사회적으로 정점을 달리다 살인사건 용의자로 자목되면서 한순간에 달라진 일상을 보내게 된다. 그동안 당차고 밝고 유쾌한 여성을 연기했던 그가 '미스티'를 통해 욕망을 좇는 인간의 '민낯'을 보여주는 변신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세련된 모습과 미스터리한 매력까지 보여줄 예정이어서 기대가 높다.

스스로 "나의 40대의 마지막 역할은 어떤 것



일까'에 대한 고민이 컸다는 그는 이번 드라마에서 그동안 선보일 기회가 적었던 연기변신은 물론 새로운 이미지 찾기도 도전한다.

이를 위해 김남주는 일찌감치 역할 만들기에 나섰다. 자신은 물론 시청자의 캐릭터 몰입을

위해 방송사 아나운서의 도움을 받아 뉴스 보도에 맞는 발음 연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의상도 스타일리스트와 상의해 선정한 만큼 패션 감각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그의 '오피스 룩'에도 관심이 뜨겁다.

고현정도 이에 질세라 자신의 매력을 한껏 드러낸다. 17일 방송을 시작하는 SBS 수목드라마 '리턴'에 출연하는 그는 활동적인 모습으로 시청자와 만난다. 늦깎이 변호사 역할을 맡아 상류층의 회대의 살인 스캔들을 파헤치는 연기를 보여준다. 열정적이고 당당함을 무기로 보통의 변호사보다 다소 적은 경력의 불리함을 이겨내는 강단과 소신이 뛰어난 인물이다. 앞서 2016년 케이블채널 tvN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 보여준 여성스러운 이미지는 확실하게 견어했다. 또 사건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캐릭터에 완벽하게 녹아들기 위해 메이크업, 의상, 헤어스타일 등에서 탈탈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한다.

특히 이번 드라마는 고현정이 오랜만에 '월 톱' 주인공으로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디어 마이 프렌즈'는 김혜자 나문희 윤여정 등과 호흡을 맞춰 자신이 돋보이는 것보다 후배로서 선배들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컸다. '리턴'으로 2013년 MBC '여왕의 교실' 이후 5년 만에 지상파 드라마에 출연하는 만큼 이미지 변신과 함께 연기 변신으로도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겠다는 각오다. **백송미 기자 bsm@donga.com**

## 숫자뉴스



200억 원 이상 상사 주식을 보유한 국내 연예인의 수. 14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2일 기준으로 이 수만(1558억1000만원) 양현석(951억3000만원) 박진영(730억원) 배용준(429억원) 함현지(311억2000만원) 한성호(270억7000만원) 박순애(229억3000만원) 등이 7대 연예인 주식부자들이다.

## #해시태그 컷



## 스노클링 유아인 "음파음파"

배우 유아인이 스노클링 장비를 착용한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영화 촬영 때문인지, 취미 생활 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 겨울에 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수영할 때 중요한 호흡법인 "음파음파"라고 쓴 글도 그렇고, 공기와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물안경을 얼굴에 밀착한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이정연 기자**

#스포츠동아 #유아인 #엄홍식 #무성김주의 #음파음파

## 이해리의 사사로운 이야기



## '골든 글로브' 니콜 키드먼 여성의 승리를 외치다

"와우! 여성의 힘!"  
구구절절한 수상 소감을 필요 없었다. 이 한 마디만 충분했다. 배우 니콜 키드먼이 최근 제 75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드라마 '빅 리틀 라이즈'를 통해 TV미니시리즈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고 외친 말이다.

올해 골든 글로브 시상식은 할리우드에서 지난해 시작된 성추행 근절과 여배우 인권을 위한 '미투'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배우는 물론 참석자 대부분이 블랙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등장했다. 세상을 향해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놀랐지만, 사실 '미투'의 외침보다 더 부러운 건 드라마 '빅 리틀 라이즈'의 탄생과 이를 가능케 한 '여배우들의 연대'가 아닐까 싶다.

'빅 리틀 라이즈'는 HBO가 지난해 첫 시즌을 방송한 드라마다. 캘리포니아 부촌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꾸민다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뒤 평범해 보이는 주부들이 이에 연루된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는 내용이다. 줄거리만 보면 크게 특별하지 않지만, 이 드라마의 진짜 힘은 여성들의 내면과 그들의 심리까지 담아내는 데 있다. 여성 시청자에 공감과 높은 지지를 받았음은 물론이다.

드라마를 탄생시킨 주역은 할리우드 톱 여배우들이다. '빅 리틀 라이즈' 제작자는 니콜 키드먼과 리즈 위더스푼. 엄마이고 아내이지만 여성이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이들의 기획과 제작, 주연을 통해 작품으로 완성됐다.

주로 영화에서 활약한 이들 여배우가 TV 드라마 제작자로 나선 사실은 흥미롭다. 무엇보다 여성에 자행되는 각종 폭력, 특히 중년 여성에 대한 삶의 딜레마를 다룬 드라마라는 점은 반갑다. 리즈 위더스푼은 제작자로서 작품상 수상자로 무대에 섰고, 이에 니콜 키드먼은 "여성의 승리"라는 수상 소감도 덧붙였다.

아직 미미하지만 국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은 있다. 지난해 배우 문소리가 주연·제작·감독한 영화 '여배우는 오늘도'가 전진한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아직 시작일 뿐. 실력 있고 매력 넘치는 여배우들의 만들어내는 그들의 이야기가 기다려진다. **엔터테인먼트 기자 goff1024@donga.com**



## 실화 '1급 기밀' '1987' 잇는다

24일 개봉...방산비리 소재 다뤄

시간이 갈수록 열기를 더하는 영화 '1987'의 인기가 또 다른 실화 소재의 영화 '1급 기밀'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단순히 영화가 담아낸 이야기기를 넘어 스크린에서 재탄생한 실화의 힘이 실제 벌어진 사건과 그 중심인물을 향한 이슈로도 번지고 있다.

장준환 감독의 '1987'(제작 우정필름)이 13일까지 누적 관객 537만 명(영화진흥위원회)을 동원한 데 이어 14일 관객을 더 보태 600만 돌파를 눈앞에 뒀다. 영화의 인기는 실존 인물과 사건에 대한 관심은 물론 극의 주요 배경인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청 인권센터)을 찾는 일반 방문객의 증가까지 이끌어내고 있다.

실화의 힘은 24일 개봉하는 김상경·김옥빈 주연의 영화 '1급 기밀'(감독 홍기선·제작 미인픽처스)로도 이어진다. 한국영화로는 처음으로 방산비리를 다뤄 주목받는 작품이다.

'1급 기밀'이 처음 기획된 시기는 2010년. 하지만 '예민한' 방산비리 사건을 다룬다는 사실에 출발부터 녹록치 않았다. 투자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개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제작비를 충당할 끝에 촬영을 시작했다.

어렵게 촬영을 마친 직후인 2016년 12월에는 작품을 기획하고 연출한 홍기선 감독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편집 등 후반작업은 고인의 오랜 동료인 이은 감독이 맡았다. 그렇게 기획부터 개봉까지 8년이 걸린 작품이다.

영화에는 세 가지의 방산비리 사건과 각각의 폭로가 하나의 이야기로 담겨있다. 1997년 국방부 전투기 부품 비리 사건부터 2002년 공군 차세대 전투기 외압설 폭로, 2009년 해군 장교의 방산비리 폭로가 주요 내용. 최대한 실화에 충실한 영화는 노골적으로 자행된 방산비리의 실체를 가감 없이 담아내 관객의 '눈노'를 자극한다.

참여한 배우들이 가진 책임감도 상당하다. 방산비리를 고발하는 기자 역의 김옥빈은 "여러 사람이 짐작하겠지만 영화가 나오기까지 많은 사정이 지켜분해 흘러 마음이 아팠다"며 "이제는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에 눈치 보지 않는 환경이 됐으니, 실화 소재 영화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앞서 '1987'을 포함해 '택시운전사' 등 실화 소재 작품들이 사회적 메시지를 만들어낸 것처럼 '1급 기밀'도 방산비리와 관련한 이슈를 제기할지도 관심을 더하는 대목이다. 방산비리 사건을 만든 주요 인물과 이를 세상에 알린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의 존재가 이미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기도 하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 연예현장.jpg

## AOA 지민 '헤이' 발매...섹시하게 시크하게



그룹 AOA 지민이 19일 패션매거진 W KOREA와 함께하는 음원 프로젝트 '#RTJ(Ready To Jimin)' 두 번째 트랙 '헤이'를 공개한다. '#RTJ'는 지민의 음악을 다 양한 분야와 믹스매치하는 컬래버레이션 음원 프로젝트. 개성 넘치는 음악색을 먼저 선보이고, 향후 음악 방송 등에서 강력한 에너지를 담은 무대 퍼포먼스로 솔로 아티스트로서 확고한 음악 세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신곡 '헤이'에서는 핏핑크 헤어와 화려한 슬림 웨어 차림의 지민이 러블리하면서도 섹시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joy@donga.com 사진제공 | W KOREA**

## “다이빙벨’ 상영 저지는 박근혜 작품”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영화계에도 피해를 입힌 구체적인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그 '피해자'는 영화 '판도라'와 부산국제영화제, 독립영화 상영관인 인디스페이스다.

최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조사위)는 2016년 12월 개봉한 '판도라'에 대해 당시 정부가 흥행을 방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중국 당시 영화진흥위 부위원장은 김중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판도라'가 "원전 비리와 정부 책임으로 원전 재난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며 "주연배우는 노사모 회원인 김명민

등이므로 정부 지원을 배제하고 배급사를 조정함으로써 흥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사위측은 설명했다. '판도라'는 영화진흥위가 민간에 위탁한 모태펀드의 투자 철화, 배급사 교체 등으로 개봉이 늦춰진 바 있다.

조사위는 또 2014년 세월호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하려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당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상영을 막기 위해 집요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위가 공개한 김희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문건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 '다이빙벨'이 상영되지 않도록

## 진상조사위 '부산영화제때 적극 개입' '판도라'도 배급사 조정해 흥행 방해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는 상영을 강행했고 이후 부산시와 갈등이 불거지면서 결국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인디스페이스는 '자가당착' '다이빙벨' 등을 상영작 목록에 올린 인디스페이스 독립영화제를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지원받으려다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당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조사위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그동안 영화계 안팎에서 소문으로만 나돌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관련 사실이 공개되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 ‘무한도전’ 효과? 조세호 상한가

### 정식멤버 발탁 후 방송가·광고계 주목

개그맨 조세호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조세호가 MBC 간판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고정 출연자로 확정된 지 2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방송가의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세호는 이전부터 여러 예능프로그램의 게스트와 각종 행사의 진행자로 초대받아오다 '무한도전'을 계기로 '러브콜'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스스로 자신을 '웃김러'라고 부를 만큼 조세호는 일회성 게스트 출연이 많았지만, '무한도전'을 계기로 고정 출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광고모델로도 꾸준히 주목받아왔던 그는 '무한도전' 이후 광고계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광고 에이전트들의 문의가 급증했다는 전언이다. 조세호는 '무한도전'에 고정으로 출연하기 전부터 게스트로



조세호

자주 등장하며 시청자들과 친밀감을 쌓아왔다. 6일 방송에서 6번째 멤버로서 합류가 최종 결정되고 13일 '면접의 신'편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맡아줬다.

조세호의 합류로 프로그램이 새로운 활기를 찾으며 13일 방송분은 지난주와 같은 수치인 11.7%(닐스코리아)를 기록했다. 조세호 특유의 적극성이 양세형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조성하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조세호 소속사 관계자는 "‘무한도전’ 고정 출연으로 인해 조세호를 바라보는 방송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프로그램의 출연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송미 기자**